

제주유배문화유산의 교육적 활용을 위하여

고 범 석 · 엄 미 경**

목 차

I. 서 론	IV. 유배문화유산의 교육적 활용
II. 유배문화를 보는 시각	V. 결 론
III. 김정희의 유배생활과 교육적 영향	

I. 서 론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절해고도이다. 이러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제주도는 최고형을 받은 유형수(流刑囚)들이 유배 온 최악의 유적지(流謫地)였다. 이것은 유배인을 다룰 때 원악지배(遠惡地配)보다 도배(島配)를 더 중죄인시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게다가 제주도는 고려 때 원나라에 점령된 후 100여 년간 원·명 등 이민족의 유적지였던 역사적 사실이 있다¹⁾. 이처럼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고려 후기부터 조선 말기까지 대표적인 유배지였다²⁾.

특히, 조선시대에는 많은 인사가 제주도에 유배생활을 하였는데, 제주유배인들은 지방민들을 적소(適所)³⁾에 모으거나 사숙(私塾)을 마련하여 학문을 가르치고 예의범절을 전수했고 제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1) 「고려사(高麗史)」에 의하면, 원나라가 충렬왕(忠烈王) 원년(1275) 4월에 도적 100여 명과 동왕 3년(1277)에 죄인 73명을 제주도에 유배시켰던 일, 명나라가 우왕(禔王) 14년(1388) 12월에 귀순한 원나라의 달달친왕(達達親王) 등 80여 호를 모두 제주도에 이주시켰던 일, 그리고 공양왕(恭讓王) 4년(1392) 3월에 원나라의 양왕(梁王) 자손 애안첨목아(愛顔帖木兒)를 제주도에 안치시켰던 일 등이 그것이다.
- 2) 조선시대에 제주도에 유배되어 온 사람들은 위로는 왕족·정치인·관리·학자들을 비롯하여 아래로는 경중(京中)의 범죄자와 국경 변방 지방의 월경범인(越境犯人)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그 수도 많았다(양순필, 1992: 10). 학문과 지덕을 겸비한 정치가 학자들이 제주도에 유배됨으로써 지방민들이 그들에게 사사(私事)하여 그들의 학문과 사상을 전수 받을 수 있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중종 때 김정(金淨), 광해군 때 정은(鄭蘊), 현종 때 신명규, 숙종 때 김진구와 김춘택, 영조 때 조관빈과 임징하, 정조 때 조정철(趙貞詰), 헌종 때 김정희, 고종 때 최익현과 김윤식, 그리고 박영효 등을 들 수 있다.
- 3) 적소란 유배인이 유배생활을 하던 곳을 말한다.

주도에 유배된 뒤 저술활동에 몰두하기도 하였다⁴⁾. 또한 왕족이나 고관·현직 등 상류사회 인사들의 유배와 그 추종자들의 제주 왕래는 의식주의 개선이나 언어와 예절, 습속을 순화시키는 데에도 기여했다(국립제주박물관 편, 2001: 153).

이처럼 제주도가 가장 대표적인 유배지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과거 제주도에 유배 온 사람들의 생활상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것은 한국역사의 발굴과 재구성의 측면에서, 그리고 제주지방사의 재창조라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일이라고 보며,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남제주군에 유배문화관이 건립될 예정으로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은 2003년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조선시대부터 대한제국시기에 이르기까지 제주지역에 유배됐던 인물들이 살았던 적거지 현장조사 및 각종 자료조사를 토대로 '제주유배문화관 기본계획'을 2004년 3월 30일 발표하였다.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100억원을 들여 남제주군 대정읍 추사 김정희 선생 적거지 인근 9만 9000㎡의 터에 제주유배문화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제주도와 문화예술재단,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는 유배문화관 조성사업에는 전시실과 영상관, 체험실 등을 갖춘 기념관 2032㎡, 적거지 1377㎡, 추념단 367㎡, 기념광장 2753㎡ 등이 조성된다. 이와 함께 추사 선생이 즐겨 그린 수선화 광장 4589㎡ 및 야외전시장, 잔디광장 등도 만들어진다. 이러한 유배문화관 건립과정에서 제주도는 『제주유배사』를 펴내고 유배인들이 체류했던 적거지와 유배지 등 유적을 정비할 방침이다. 또한 제주도는 앞으로 관련학과와 유배인 후손 등으로 '유배문화 조명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유배인 재조명사업 및 유배인 관련 유물기증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며, 2004년 4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전국적으로 제주지역에 유배왔던 인물들을 조사할 계획이다(〈한겨레신문〉 2004년 3월 30일자). 그러면, 왜 현 시점에서 제주유배문화에 대한 재조명이 지역쟁점 가운데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가. 이는 2000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초등학교 교육과정(7차)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하나가 바로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점, 제7차 교육과정의 특징이 "학생 중심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 교육청과 학교,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해가는 교육과정"에 기준을 두고 있다는 것(교육인적자원부, 1997: 2), 그리고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지역인 만들기⁵⁾와 관련이 있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특징이나 구성의 방향에서 민족문화교육에 큰 비중

4) 정온이 『덕변록(德辨錄)』, 『망백두시(望白斗詩)』, 『망백운가(望白雲歌)』를 지어 애군애족(愛君愛族)의 정을 나타낸 것은 대표적인 예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집 중에는 제주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김정희의 『충암집(沖庵集)』, 정온의 『동계집(桐溪集)』, 이건의 『규창집(葵窓集)』, 신명규의 『묵재기문록(默齋記聞錄)』, 김춘택의 『북헌집(北軒集)』, 임징하의 『서재집(西齋集)』, 조관빈의 『회헌집(晦憲集)』, 조정철의 『정헌영해처감록(靜軒瀛海處坎錄)』, 김정희의 『완당집(阮堂集)』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5) 지역정체성은 대체로 지역의 자율적 발전, 지역 간 경쟁이 부각되는 시기에 강조되며, 초등학교의 사회 과목이나 지리교육을 통해 향토가 학습되며 이를 통해 지역의 역사나 전통을 이해하고 내면화한 지역인이 탄생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자신이 태어나고 거주하고 있는 지역공간의 역사가 지역주민에게 내면화되며 재구성된 지역사는 해당 지역주민의 정체성의 재구성에 영향을 미친다(염미경, 2000: 750).

을 두고 있고, 아울러 향토문화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학교급별 교육목표를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고 애호하는 태도를 가진다.”로 되어 있고, 중학교에서는 “우리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지니고, 이를 발전시키는 태도를 가진다.”이며, 고등학교에서는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세계 속에서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가진다.”로 되어 있는데(교육인적자원부, 1997: 3-4) 향토문화의 교육적 적용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침이 있다. 더욱이 지역 교육청과 학교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용 재량권을 주고 있다. 이를테면 지역 교육청에서는 지역 특성에 적합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지도하는데, 교사, 교육행정가, 교육과정(교과)전문가, 학부모, 지역 인사 등이 참여하는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교육인적자원부, 1997: 18) 이를 중심으로 학교에서는 학교 실정에 알맞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별로 향토문화자료를 교과에 투입하여 적절히 운영할 수 있도록 향토자료를 수집하고 교육과정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유배문화를 제주유배문화⁶⁾로 규정하고 유배인들의 제주지역에서의 생활상을 추사 김정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특히 김정희의 유배생활이 제주지역에 끼친 교육적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유배문화유산의 향토사교육자료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연구대상은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조선시대의 유배문화이다. 시대적으로는 조선시대에, 공간적으로는 제주도에 그 대상을 한정시켰다. 이 논문의 자료는 문헌자료를 위주로 하였는데, 구체적인 분석대상은 김정희의 유배생활로 한정했다. 제주유배인들 중에 김정희를 선택한 이유는 다른 유배인들(보통 1년 이내)보다 비교적 장기적인 9년 여의 유배생활을 하였기 때문이며, 이후 제주지역 유배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때문이다.

II. 유배문화를 보는 시각

조선시대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유배문화를 빚겨나가기 힘들다(양순필, 1992). 이는 조선사회가 양반사대부계층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심화했었다는 것과 봉당정치가 끼친 영향이 매우 크다는 역사성에서 비롯된다. 당시 제주도는 환해성과 격절성·협소성을 지닌 섬이었다는 단순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것이 역사적인 유배지였다는 측면에서 파악할 때 섬이 갖는 사회적 정체성과 전통적 생활문화의 후진성에 폭넓은 지역의 개성과 향토성을 갖게 된다⁷⁾.

6)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유배문화 개념은 양순필(1992: 47)과 양진건(2001: 334)의 정의이다. 이들은 제주유배문화 개념을 당대에 비판적이었던 유배인들과 현지주민들이 교류하면서 만들어낸 불의에 저항하는 선비정신을 포함하는 유교문화의 의미로 사용한다.

7) 즉, 조선시대는 고려시대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이룩함으로써 중앙의 입장에서 제주도는 변방으로 취급되어졌다. 제주는 인물의 고향이 아닌 말의 산지로 더욱 알려지고 중앙정치의 희생자들이 귀양 오는 유배지로 인식되어나갔다. 제주인들의 대외관계는 한반도와의 단선적인 접

이런 측면에서 변방으로서 꺾박을 받으면서 설움을 느꼈던 제주인들에게 바다는 격절의 공간이었고 제주섬은 고립의 공간이었다(한석지 외, 1998: 122). 이러한 변방의 시기 5백 년 동안 제주인들은 특유의 생존을 위한 정체성⁸⁾을 형성하게 된다. 외부에 대한 순응은 '수눌음'으로 대표되는 공동체적 노동방식, '조냥'으로 상징되는 내핍적 생활양식으로 집약되면서 끈질기고 억척스럽고 강인한 기질이 제주인의 정체성으로 여겨지게 된다. 반면, 조선왕조 말기에 제주인들은 민란을 통하여 중앙 정부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반발은 제주인의 저항 기질을 강화시켰고, 외부인들에게는 배타적 정체성으로 강하게 비쳐졌던 것으로 보인다(한석지 외, 1998: 122). 이러한 제주인의 정체성은 4·3을 거치면서 무조건적인 순응과 반발로 양극화되어갔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조선시대 제주유배인들의 영향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1983년에 제주대학교의 양순필(梁淳稜) 교수가 『한국인명대사전』에서 추출한 조선시대 유배인 700명의 유배지를 조사하여 정리한 지역별 배속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조선시대 유배인들의 유배지 배속표

지역	경기	평북	평남	함북	함남	황해	강원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계
인수	32	65	20	56	47	24	33	30	27	77	60	51	129	49	700
계	32	85		103		24	33	57		137		180		49	700

자료: 양순필(1983: 52)에서 재인용.

〈표 1〉에 의하면 제주도(추자도 포함)에 정배된 사람이 49명⁹⁾이다. 제주도 유배인들은 더 이상 조정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중형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이 경우 현지 목사나 향리의 배려로 유쾌되는 일은 모면할 수 있어 현지주민들과의 접촉이 가능했고, 따라서 이들은 주민들과 권위적으로 접촉하기보다 현지와 화합함으로써 독특한 유배문화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대표적인 곳이 제주도 대정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배문화이다. 대정은 제주도에서도 가장 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포구인 모슬포를 일컬어 '못살(사람이 살지 못할)포'(양진건, 2001:

축에 그치게 되었다. 더욱이 17세기 인조 7년(1629)부터 내려진 출륙금지령이 순조 30년(1893)까지 2백년 동안 지속됨으로써 제주인들은 유배인들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폐쇄적인 삶을 강요당하였다. 이처럼 출륙금지령이 내려진 이유는 많은 수의 제주인들이 육지로 이주하였기 때문에 군사 수의 감소와 부역인의 수가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8) 지역정체성의 형성에는 주민의 공동체적 역사경험이 큰 영향을 미친다. 이데올로기에 의해 창출된 상상된 공동체적 경험보다 훨씬 강력하고 끈질긴 것이 직접적인 공동체적 경험이며 특히 외집단과의 투쟁으로 경험될 때 더욱 그렇다(정근식, 1996: 162).

9) 최근 발표에 의하면 조선시대에 제주도에 유배된 인물은 200여 명이 넘는다(〈한겨레신문〉 2004년 3월 30일자). 유배인 수 이외에 유배인들이 유배지에 체류한 기간도 유배지의 지역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조선시대의 유배인들은 어느 한곳에서만 유배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이배되기도 하였다. 한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유배인들의 유배기간은 1년 미만이었다(이해준, 1987: 374). 유배문화의 형성을 살펴보면 이러한 요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34)라고 비하했던 것처럼 조선시대 원악(遠惡)의 유배지로서 대표적인 곳 가운데 하나이다. 조정의 정치권력 유지를 위해 배척해야 할 당사자들 가운데 중죄인이라는 이름으로 멀리 추방 및 격리시키기 위한 최적지로 제주도 대정이 이용되었던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대정은 제주도 유배문화의 중심에 자리한다. 당대에 비판적이었던 유배인들과 현지 주민들이 교류하면서 만들어진 제주도 유배문화의 독특한 특징을 대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양진건, 2001: 334).

유배인들은 교육자 또는 자기완성자로서 현지 주민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현지의 학문 향상과 문화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기도 했다. 원래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개인의 인격과 학문적 소양을 닦은 후에 남을 다스린다는 수기치인(修己治人)을 전제로 한 학자관료(士大夫)로서 학문적 소양으로 정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학자이면서 정치인이었고, 정치인이면서 학자였다. 유배되었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지만 학자적 기능은 여전히 가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많은 유배생활을 서재생활로 전환하여 치열한 학자적 생활을 전개한 유배인들도 많았는데, 유배인들은 현지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학자로서 유교적 교양을 바탕으로 한 많은 지적 유산을 유배지에 남겼다. 이제 유배인들은 현지 주민들과의 동화를 통해서 죄수라기보다 교육자 또는 자기완성자로서 여러 성과를 남긴다. 김정희가 제주도 유배기간에 추사체(秋史體)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성과 가운데 하나이다. 다음에서는 유배문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와 관련해 몇 가지 시각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배지 문화론’을 가장 먼저 제시한 김정호는, “전남이 농경지대에 가장 풍요로운 곳이었으면서도 왕도(王都)인 서울과 먼 곳에 위치해 있었다는 특징 때문에 유배지와 은둔지로 이용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선시대 340년 동안 귀양살이한 사람 700명 중 1/4이 넘는 178명이 전남지역으로 귀양왔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전라도를 유배지로 특화시켰던 것이다. 그에 의하면, 전라도의 유배지적 사회환경은 주민의식을 반집권적·현실 비판적으로 이끌었으며 유배되어 온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시·서·화(詩·書·畫)에 큰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이다(김정호, 1983: 13).

이러한 김정호의 논지는 일견 타당해 보이며 실제로 전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 왔다(박미선, 2002: 222).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데, 우선 박석무는 인물 중심의 호남학에 대한 전통을 다루면서 호남의 ‘유배문화론’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다산초당에서 이루어진 많은 저서가 필사되어 다산의 지식과 사상이 지역지식인에게 전파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당시 반항적 입장에 서있던 호남의 지식인들은 큰 자극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즉, 박석무는 ‘다산학’이 체계화되는 과정에서 다산과 지역엘리트들의 학문적 교류가 양쪽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았다(박미선, 2002: 222; 박석무, 1996). 이러한 주장은 “전라도 지식인들이 유배인들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교화되었다”는 기존의 소극적 사고방식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박미선, 2002: 222).

다음으로, 김동수는 ‘호남소외론’과 ‘유배문화론’의 허구성에 대하여 비판적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호남지역이나 호남사람들에 대한 차별정책과 편견이 언제 어떻게 시행되고 형성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했다. 그 결과 기존에 제시된 ‘백제 멸망시기론’, ‘고려 혼요십

조 제정시기론', '조선시대론'과는 달리 일제시대와 박정희정권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새로운 견해를 피력했다. 즉, 호남지역민에 대한 편견은 일제시대의 차별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낙후, 이로 인한 호남인들의 타지역으로의 이주와 정착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들에서 비롯되었으며, 이후 박정희 정권에 의하여 더욱 조장·확대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는 호남 소외의 문제가 지극히 현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이를 인식하고 치유·해소하려는 방안 또한 그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박미선, 2002: 223; 김동수, 1996).

또한 김동수는 기존의 "전라도 지역은 유배문화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는 속설이 지나치게 주관적이므로 좀 더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선시대 전체 유배인 700명의 첫 번째 유배지만을 기준으로 '전라도 유배지론'을 내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배인들이 그 지역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었는가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배되어 온 사람들이 과연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문화를 전파했는가 하는 문제도 함께 파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유배인들에 의해 반집권적이고 현실 비판적인 지역정서가 형성되었다"는 주장은 관념론적인 허구일 뿐이라고 비판하였다(박미선, 2002: 223; 김동수, 1995).

제주유배문화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양진건의 『그섬에 유배된 사람들-제주도 유배인 열전』과 「유배문화와 제주도: 제주교육의 기저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제주유배인의 개화교화활동 연구(濟州流配人의 開化敎學活動 研究)」, 「추사 김정희의 제주유배 교학사상 연구(秋史 金正喜의 濟州流配 敎學思想 研究)」, 김동전의 「조선시대의 제주사회: 유배문화와 방어유적」 등이 있다. 양진건은 유배인들은 교육자 또는 자기완성자로서 현지 주민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현지의 학문 향상과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본다(양진건, 2001: 334). 많은 유배 생활을 서재생활로 전환하여 치열한 학자적 생활을 전개한 유배인들도 많았다. 따라서 유배인들은 현지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학자로서 유교적 교양을 바탕으로 한 많은 양의 지적 유산을 유배지에 남겼는데, 유배인들은 현지 주민들과의 동화를 통해서 교육자 또는 자기완성자로서 여러 성과를 남겼다. 김정희가 제주도 유배기간에 추사체(秋史體)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성과 가운데 하나이다(양진건, 2001: 333).

이 논문은 유배인들에 의해서 현지의 학문 향상과 문화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추사체'가 체계화되는 과정에서 추사와 지역엘리트들의 학문적 교류가 양쪽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논의를 전개해나가고자 한다. 이는 조선시대 제주출신의 대학자로서 고득중과 양성지같은 뛰어난 인물을 배출한 것으로 보아 제주지역도 수준 높은 유교문화가 발달했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은 곧 제주지역에도 나름대로 인재들이 배출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조 7년(1629년)부터 순조 30년(1830년)까지 출륙금지령이 내려지면서 제주인들은 유배인들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폐쇄적인 삶을 강요당하게 되었고 문화적으로도 낙후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유배인들과의 교류는 지역문화 발전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III. 김정희의 유배생활과 교육적 영향

조선시대 제주유배인들 가운데 개화사상의 발전적 연원이 실학사상을 기반으로 했다는 점에서 김정희가 주목된다. 김정희는 실사구시 학파의 개산조(開山祖)로서 박제가를 첫 스승으로 모시면서 실학의 학문적 기초를 다지게 되고 연경 예방으로 청조학적(淸朝學的) 전통을 승계함으로써 실사구시의 방법론을 인식하게 되어 약관의 나이에 몸소 학파의 원류로서 두각을 보이게 된다. 그는 안동김씨의 정치극으로 자행된 헌종 6년(1840)의 윤상도 옥사가 재론되기 전까지는 평탄한 출사기를 보내다가 이 사건으로 55세 때 유배되면서 종신무기수로서 9년간의 중요한 후반생을 제주도에서 보내게 된다. 즉, 추사의 학문적 활동은 헌종(憲宗) 20년(1840) 윤상도 옥사(尹尙度 獄事)가 재론되기 전까지 평탄한 출사기(出仕期)를 보내다가 55세에 이 사건이 발미되어 절도안치(絶島安置)라는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되며 결국 9년간 제주도(濟州島) 대정현(大靜縣)에서 유배형을 치루게 된다¹⁰⁾. 추사의 제주유배는 나이 어린 헌종이 즉위하여 순원왕후 김씨(純元王后 金氏)가 수렴청정(垂簾聽政)을 하게 되어 안동김씨가 득세하게 되면서 헌종의 외가인 풍양 조씨에게 세도를 빼앗길 것을 염려하여 안동김씨가 풍양 조씨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술책의 하나로 풍양 조씨와 가까운 추사일문(秋史 一門)을 탄핵함으로써 빚어진 정쟁의 일환이었다. 중형(重刑)의 유배인인 경우 적소(適所)의 목사나 향리의 배려로 유폐되는 일을 모면할 수도 있어 유배지 주민들과의 인간적인 교류가 가능했다¹¹⁾. 추사는 이런 기회를 얻어 제주도 주민들과 교류를 통해 견문을 넓히면서 인격을 수양하고 자기의 때를 기다리는 삶의 휴식년으로서 교육자 또는 자기 완성자로서 많은 성과를 남겼다. 따라서 추사는 제주도 현지에 권위적으로 관계하기보다는 현지의 사정에 조화하여 동화함으로써 현지 주민들의 지식과 교양을 자극하고 교양시킴으로써 제주도 나름의 독특한 향당문화권(鄕堂文化圈) 형성을 주도할 수 있었다.

김정희는 제주도에서 해국도지류의 선각적 사상을 여러 제주학인들에게 유포시키는 등 영향력 있는 활동을 한다. 김정희의 활동은 개화사상의 전체적인 명맥(命脈)과 관련된 활동으로서 제주도인의 근대적 각성에 공통적으로 기여를 하는데, 무엇보다 제주도 근대교육의 구체적 전망을 열었다는 점에선 교육사적 의의를 갖는다(양진진, 1990: 281-282).

제주에서의 추사 김정희의 유배활동은 제주교육의 질적 변화에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무엇보다도 추사는 모범적인 독서활동을 통해 제주교육에 수준 높은 자극과 변화를 예고하였는데 왕성한 사제관계가 이를 대변한다. 제자가 3천명이라는 “완옹문하삼천사불부재명독출군(阮翁門下三千士不負才名獨出群)”(양진진, 2003: 97: 『姜堉全集』, 上, “同白小香金松年再會紅館送

10) 『憲宗실록』, 卷七, 六年, 庚子 九月 辛卯條, 「鞠囚罪人正喜大靜縣」

11) 이것은 어떤 일정한 원칙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며 순전히 목사나 향리의 사적 관계(私的關係)로 이루어진 배려의 차원이다. 특히 유배인의 정치적 경중(政治的 輕重)과 정치적 상황(政治的 狀況)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루어졌다. 추사의 경우 제주목사 이원조(李源祚)나 장인식(張寅植)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양진진, 1992: 190).

別”)의 시어(詩語)가 시사하듯 많은 제자를 배출하였다. 제주도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많은 사람들과 사우강습이 가능할 수 있었는데 강사공(姜師孔), 박계첨(朴啓瞻), 허숙(許淑), 이시형(李時亨), 김여추(金麗錐), 이한우(李漢雨), 김구오(金九五), 강도순(姜道淳), 강기석(姜琦奭), 김좌겸(金左謙), 홍석우(洪錫祐), 김병욱(金炳旭) 등이 대표적이다.

조선시대 제주교육의 질적 변화의 구체적 예증은 추사와의 사우강습을 통해 발흥한 위항문화운동(委巷文化運動)¹²⁾으로 나타나는데 이 운동은 주로 추사와 만남을 가졌던 제주도 지식인들이 주도하였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운동을 통해 김구오, 강도순, 박계첨 등은 제주필원으로 추앙(推仰)된다. 이 운동의 하나인 전각운동(篆刻運動)¹³⁾은 제주도 지식인들 가운데 김구오에게 승계되었으며 이어 김구오의 아들인 우제(愚齊)가 정통(正統)을 이었고 우제의 아들 김의남(金義男)이 가법(家法)을 따랐다. 이어 김의남을 홍종시(洪鐘時)가 이었고 이어 박판사(朴判事)(성명 미상)가 전승하는 등 조선 후기 특유의 문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그것은 곧 제주도 독자적인 교육운동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제주도의 위항문화운동은 유배인 김정희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학예적 흐름이 중요하며 이 흐름은 김정희가 그의 문하에 중인출신의 무수한 제자를 배출하면서 가능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추사의 독서활동은 단연 독보적인 모범이었다. 조선 후기의 이같은 제주도의 문화운동은 조선 말기 제주도의 시회(詩會) 「굴원(橋園)」의 모임과 활동으로 계승된다. 이러한 문화운동으로서 교육내용의 변혁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추사의 학문관에서 기인한다. 즉, 김정희는 인간의 문화는 실은 철저하게 학습되고 계승되는 것이며 문화수준의 지역적 차이는 인종의 재능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를 통하여 개발되고 계승된 문화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낙후된 문화수준을 끌어올리고 문혀 있는 재능을 개발하는 것은 스승의 인도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궁벽한 절해도도 제주도에 문화의 계발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였고 중인계층의 시재(詩才)를 유난히 반가워하고 격려했다는 사실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자신이 속해 있는 동양문화권의 정상에서

12) 위항이란 원래 사대부와 서민의 중간 계층인 중인 신분계층이 사는 곳을 말한다. 실학으로 인해 생활에 여유가 생긴 의학, 역학, 산학, 율학, 악학 등 이른바 잡학에 종사했던 전문 지식인인 이들은 초기에는 관계 진출에 뜻을 두고 공부하지만 곧 신분상의 제약으로 인해 좌절을 겪게 되면 문학으로 관심을 돌리는데 이를 두고 위항문학이라고 한다. 추사가 제주도에서 만난 제주도 지식인들은 대부분 중인 신분이었으며 이들은 거주지를 중심으로 문학적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시사(詩社)를 결성하거나 전각운동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를 양진전은 위항문화운동이라고 한다(양진전, 2003: 98).

13) 전각은 동양 특히 중국권 문화의 독특한 순수예술이다. 전각은 한자의 전서체를 새겨 조각하는 것, 즉 인장을 조각하는 것이다. 전서체를 쓰는 이유는 자형(字形), 획 등이 갖는 조형성이 돌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가장 아름다운 효과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드시 전서체만을 쓰는 것은 아니며 다른 서체를 쓰더라도 모두 전각이라고 한다. 전각은 돌에만 새기는 것은 아니며 여러 재료를 사용한다. 당대 독특한 전각풍을 이루고 있던 추사는 제주도 사람들에게 전각하는 방법을 가르쳤으며(使此中學徒鑿摹刻) 재주가 좋은 제주도 사람이 죽자 매우 애통해 하기도 했다(而此中善刻者間已化去是切悶然). 이와 같이 당대 제주도에서는 추사를 통한 전각의 보급이 활발했는데, 이를 양진전은 전각운동이라고 한다(양진전, 2003: 98).

문화에서 소외된 지역, 소외된 계층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정열을 아울러 가졌던 것이 감동적이었고, 따라서 유배지에서도 문화에 많은 사람들의 내왕이 빈번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열악한 환경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스승의 문화에 제자들의 내왕이 빈번하였다는 것은 사도(師道)가 존엄하다는 것과 관련된다¹⁴⁾(양진건, 2003: 100).

한편, 추사는 제주도의 나쁜 풍조의 하나를 무지(無知)로, 다른 하나를 과거 위주의 편협된 공부 풍조로 보았다. 특히 후자의 문제는 실학자들이 당대 교육부실의 원인으로 지적하였던 사안이다. 이러한 풍조를 직시하며 추사는 제주인들과 흥학교화(興學教化)의 동화를 통하여 교육 사상의 수준 높은 자극과 변화를 일으켰는데, 왕성한 추사인맥(秋史人脈) 형성이 바로 그 증거이다. 강사공(姜師孔), 박계첨(朴啓瞻), 허숙(許淑), 김우민(金于民), 이시형(李時亨), 김여추(金麗錐), 이한우(李漢雨), 김구오(金九五), 강도순(姜道淳), 강기석(姜琦奭), 김좌겸(金左謙), 홍종우(洪錫祐) 등이 제주도에서 그와 사제강습(師友講習)의 예(禮)를 통해 관계 맺은 사람들이다. 이들의 신분계층은 양반사대부를 제외한 넓은 의미의 하층계층으로서 위향계층(委巷階層)이라고 지칭되었던 중인들¹⁵⁾이다.

이들 가운데 강도순은 추사가 이적하여 머물렀던 집주인으로 추사의 영향으로 후일 제주필원(濟州筆苑)으로 추앙된다. 특히 강도순의 가계를 통한 추사의 영향은 독특한 구조를 통해 후대에 매우 크게 승계되었다. 원악(遠惡)의 유배인들이 갖는 성향은 대체로 체제비판적(體制批判的)이다¹⁶⁾. 이러한 성향은 유배지 현지주민들에게도 유포되기 마련이며 비록 그 성향 표출이 노골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주민들과 만남의 저변 분위기는 유배적 갈등과 무관하기 어렵다(양진건, 1992: 192-193).

14) 추사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서예의 대가라는 측면에서 대개 그 개인의 예술관과 예술활동에 관한 논의가 대부분이며 이밖에 문학적 연구가 부수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어떤 형식으로는 그에 관한 교육적 논의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더욱이 9년에 걸친 제주유배 동안 전개된 그의 교학활동(敎學活動)에 관한 논의는 양진건의 연구(1992)에서 찾아볼 수 있다.

15) 전근대시대를 통하여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사이의 중간계층은 항상 존재하고 있었지만, 신분개념으로 중인이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이후 즉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이다. 이 때의 중인은 좁은 의미의 중인과 넓은 의미의 중인으로 구분된다. 좁은 의미로는 주로 중앙의 여러 기술관청에 소속되어 있는 역관(譯官)·의관(醫官)·율관(律官)·산관(算官)·화원(畫員) 등 기술관원을 총칭하였다. 이들은 잡과(雜科) 시험에 합격하여 선발된 기술관원이거나 잡학 취재(取才)를 거쳐서 뽑힌 기술관원으로서 모두가 동반(東班) 소속의 관원이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중앙의 기술관을 비롯하여 지방의 기술관, 그리고 서얼(庶孽), 중앙의 서리(胥吏)와 지방의 향리(鄕吏), 토관(土官)·군교·교생 등 여러 계층을 포괄적으로 일컫었다. 이 넓은 의미의 중인이 조선사회의 중간계층을 이루고 있는 신분층이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양반 사대부 계층에 비하여 차별대우를 받았으며, 신분과 직업은 세습되었다. 이들은 육조(六曹)와 삼사(三司) 등의 일반 관직에 나아갈 수 없었고, 한품서용제(限品敍用制)에 의해 관직 승진에도 제한이 가해졌다. 또 이들은 지방 양반의 명단인 향안(鄕案)에 등록되지 못하였고, 향교(鄕校)에서도 양반의 아래에 앉아야 하는 등 양반에 의해 천시를 받았다. 양반들은 중인을 행정 사역인(使役人)으로 부리기 위하여 이들을 신분적으로 얽어매고 관념적, 제도적으로 철저히 차별하였던 것이다.(<http://100.naver.com/100.php?mode=body&id=141837> 참조)

16) 이에 대해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의미하는 체제비판적이란 군왕이라는 체제의 상징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상징을 보위하는 정치적 구조에 대한 비판을 의미한다(양진건, 1992: 193).

유배인들의 성향은 관계한 주민들의 가계 또는 제반 환경을 통해 후대에 계승된다. 예를 들면, 제주도 대정 지역에서 엿볼 수 있는 반골적 성향(叛骨的 性向)이 바로 그러한 예¹⁷⁾이다. 즉, 이것은 조선조 최악의 유배지였던 대정이 유배제도내에서 할 수 있었던 역사적 선택이었다. 추사와 관계하였던 강도순(姜道淳)의 후손 가운데 강우백(姜遇伯)은 1901년에 일어난 이재수난(李在守亂) 또는 성교난(聖敎亂)로 불리우는 농민항쟁의 장두 가운데 한사람이었다. 또한 강문석(姜文錫)은 일제시대에 한라의숙(漢拏義塾)을 열고 인재육성과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등 교육사업에 힘썼으며 나아가 1948년의 제주도 4·3사건 당시 좌익계의 거물로서 활약했던 이승진(李承珍)은 강문석의 사위였다. 이승진 역시 중종때 제주에 유배된 이세번(李世蕃)의 후손이며 또한 이세번의 선대인 이재수(李在守)는 1901년 이재수난의 장본인으로 체제비판의 승계구조는 복잡 미묘하다.

다른 한편, 이한우(李漢雨)는 추사가 제주에서 만난 가장 격조 높은 종유자(從遊者)였다. 이한우는 시에 능하기도 했었지만 강기석(姜琦奭), 오승현(吳承鉉) 등 유림들과도 종유하며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였던 당대 제주의 사표(師表)였다. 안달삼(安達三), 김희정(金羲正), 이계징(李啓徵) 그리고 고영흔(高永昕) 등이 그의 제자들이었는데 당시 도학(道學)으로는 안달삼을, 시학(詩學)으로는 김희정을 남주 제일인자(南洲 第一人者)로 꼽았던 것을 보면 이한우의 비중을 알 수 있다(吳文福, 1989: 227). 안달삼과 이계징은 후일 장성의 노사 기정진(蘆沙 奇正鎭) 문하생으로 활약하게 되고 김희정은 면암 최익현(勉菴 崔益鉉)이 제주도에 유배왔을 때 문인이 된다(양진건, 1992: 194). 이들의 학문적 기초가 이한우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볼 때 이한우는 당대 제주 교학질서의 중추적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한우의 「제추사선생수성초당(題秋史先生壽星草堂)」이라는 한시(漢詩)에서 그런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吳文福, 1989). 추사인격(秋史人格)과의 만남은 처음부터 성공적이었으므로 추사를 숭앙하게 되었으며, 추사 또한 그의 유배거실인 수성초당을 개방하였던 것이다.

또한 추사는 금석(金石)의 가치를 서체(書體)에 직결시키고 서법연구의 주안점을 금석학에 두었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서도(書道)를 강조하였다. 그의 서법은 임진왜란 이후 현저하게 쇠퇴한 것을 청대 학술의 영향에 근거하여 부단한 노력으로 체득, 대성한 입론(立論)이기 때문에 서도에 큰 강조점을 두었던 것이다. 정조(正祖)때 제주 여류자선가 김만덕(金萬德)의 유덕을 찬양하여 그의 양손(養孫)인 김종주(金鍾周)에게 가문을 송찬하는 「은광연세(恩光衍世)」라는 친필의 액(額)을 주는 등 추사는 자신의 글씨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그 열의를 보전시켜 나갔다. 유배인이 고위정객(高位政客)일수록 일부 제주인들과의 관계는 매우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무엇보다 해배(解配) 후의 정치세(政治勢)의 복귀에서 비롯되는 이해(利害)가 그런 관계를 가능케 하였던 기본 동인(動因)이었다. 질시 또한 그런 관계의 연장에 놓여있는 문제였다(양진건, 1992: 194-195).

한편, 서법과 함께 논의되는 것이 전각(篆刻)이다. 원래 전각은 중국의 진·한대(秦·漢代)에

17) 제주도의 반골적 성향은 제주도 내외에서 가해졌던 여러 수탈과 탄압, 그리고 박해와 혼란에서 연유한 저항정신이라는 차원에서 논의된다. 때로 분리주의적 유산이나 혹은 야당성이라는 맥락에서 얘기가 되기도 하는데 제주도 민란의 대부분은 대정을 중심으로 일어났다(양진건, 1990: 274).

서부터 활발하게 궤도에 올라서 송대(宋代)에 이르러 전각의 감상이 비롯되었다. 전각의 서체는 한대(漢代)에 극도로 발달했다가 당·송(唐·宋)에 이르러서는 그 격(格)이 매우 떨어졌다. 그후 원대(元代)에 이르러 복고를 내세웠고 청대(清代)의 고증학과 더불어 금석학의 발달을 보게 됨에 따라 전각이 면모를 크게 일신하였으며 특히 등석여(鄧石如)는 한인(漢印)의 각(刻)을 본받아 새로운 전각풍(篆刻風)이 일어나게 되었다.

추사는 이에 영향을 받아 고인보(古印譜)를 구득(求得)하여 직접 진·한(秦·漢)의 실영(實影)을 본받게 되어 그의 전각은 청대(清代)의 그것을 뛰어 넘은 진경(眞境)을 스스로 닦게 되었으며 점차 그 독특한 전각풍을 이룩하게 되었다(김응현, 1981: 207-220). 추사는 제주인들에게 각(刻)하는 방법도 가르쳤으며 이러한 노력은 김구오(金九五)에게 승계되었고 이어 김구오의 아들 우제(愚齋)가 정통을 이었고 우제의 아들 김의남(金義男)이 가법(家法)을 따랐다. 김의남의 전각은 홍종시(洪鍾時)로 이어졌으며 이것을 박판사(朴判事)(성명 미상)가 승계하였다. 홍종시는 서법(書法)과 전각(篆刻) 등에 있어 「추사연원서법입신(秋史淵源書法入神)」이라는 세평(世評)이 시사하듯 추사를 비교적 제대로 계승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는 『완당선생서법총론(阮堂先生書法總論)』이라는 저서도 남겼다(양진건, 1992: 195-195).

이와 같이 추사와 제주인들과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조선시대 후기의 제주도 문풍진작이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추사의 유배생활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내도(來島)를 통해 계속되었던 추사학파(秋史學派)의 교학적 열의 그 자체에도 그러한 진작의 요인이 내포되어 있었다.

이러한 추사의 교학활동을 통해서 추사의 교학사상을 살펴보면 추사는 국가가 발전하는 길은 위정자(爲政者)의 윤리의식, 정치관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각 분야에서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더욱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의 교육적 관심이 아주 하찮은 자질구레한 것이고, 저변 사람들에게까지 미쳐 있음은 이를 단적으로 입증한다. 이러한 교육의식의 연장에서 추사는 유배지 제주도에서도 교학활동을 통해 문하(門下)에서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였다. 따라서 추사의 제주 교학활동은 스승과 제자가 진실로 상감(相感)하면 단 하루의 만남이라도 평생 동안 잊지 못하는 관계로 이어진다(일일위사종신불망(一日爲師終身不忘))는 것을 보여준 모범적 증거이다. 이들 제자들은 조선후기 제주교육의 문풍진작(文風振作)에 중요한 세력이 됨으로써 새로운 향당문화(鄕黨文化) 형성의 밑거름 역할을 한다.

제주 유배인들의 개화교학활동은 다른 무엇보다 제주도 근대교육의 구체적 전망을 열었다는 점에서 교육사적 의의를 갖는다. 우선 죄인이라는 유배인들의 제한된 신분과 역할때문에 일부 한정된 제주도 지식인들과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교류라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배인들의 제주교육에 대한 영향은 제도적이기보다는 계몽적이며 형식적이기보다는 비형식적이었다. 이렇게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양이나 질에 있어서도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배인들과 제주도 지식인들과의 교류는 당대 제주도 상황에서는 큰 교육적 자극이며 의미 있는 영향이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조선왕조 약 5백년을 통하여 술한 인사가 제주도에서 유배생활을 하였다. 따라서 이들이 제주도에 미친 영향도 컸다. 학문과 지덕을 겸비한 정치가이자 학자들이 이곳에 많이 유배됨으로써 지방인 자체들이 그들에게 사사(私事)하여 그들의 학문과 사상을 전

수 받을 수 있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 중종 때 김정(金淨), 광해군 때 정은(鄭蘊), 현종 때 신명규, 숙종 때 김진구·김춘택, 영조 때 조관빈·임징하, 정조 때 조정철(趙貞喆), 헌종 때 김정희, 고종 때 최익현·김윤식·박영효 등을 들 수가 있다. 이들은 지방 자제들을 적소(適所)에 모으거나 사숙(私塾)을 마련하여 학문을 가르치고 예의범절을 전수했다. 따라서 뒤에 그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적소 부근에 유허비를 세우거나 사당을 세워 그들의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들 유배인들은 제주도에 유배된 뒤 저술에 몰두하기도 하였다. 정은이 『덕변록(德辨錄)』·『망백두시(望白斗詩)』·『망백운가(望白雲歌)』를 지어 애군애족(愛君愛族)의 정을 나타낸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집 중에는 제주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수록된 것들도 있다. 김정의 『충암집(冲庵集)』, 정은의 『동계집(桐溪集)』, 이건의 『규창집(葵窓集)』, 신명규의 『묵재기문록(默齋記聞錄)』, 김춘택의 『북헌집(北軒集)』, 임징하의 『서재집(西齋集)』, 조관빈의 『회헌집(晦憲集)』, 조정철의 『정헌영해처감록(靜軒瀛海處坎錄)』, 김정희의 『완당집(阮堂集)』 등은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외에, 왕족이나 고관·현직 등 상류 사회 인사들의 유배와 그 종자(從者)들의 제주 왕래는 의식주의 개선이나 언어와 예절을, 습속을 순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국립제주박물관 편, 2001: 153).

IV. 유배문화유산의 교육적 활용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적합성, 타당성, 효과성을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추출한 다음, 그 동안 설 자리를 잃었던 창의성교육과 인성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여 지·덕·체가 조화된 전인을 육성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학습지도를 개별화하고 학습을 개성화하며 학생들의 활동을 자율화하고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여 미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그 교육적 가치를 두고 있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의 개정배경에서도 「국제화·개방화의 물결 속에 외래문화를 무분별하게 수용함으로써 주체성을 상실하지 않을까 우려되므로 우리의 전통문화 속에서 주체적인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을 명명하고 있다.

한편, 우리 교육은 '가르치는 교육'에서 '스스로 찾아 배우는 교육'으로 크게 전환되고 있으며, 보다 높은 창의력과 도덕적 품성을 갖춘 전인 교육의 실천을 위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신장'과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체험적 지식을 자기화하는데 필요한 학습 방법과 학습 기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인적, 물리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특히, 제주도는 지역적 특성 면에서 조선시대에 유배지로 정착되면서 지역인사들과 유배인들의 교류로 한국유학사의 양대 학파인 기호학과와 영남학파가 분포하며 이를 상징하는 적지 않은 유교문화유산이 제주도 전 지역에 산재해 있어 환경적인 면에서 볼 때 활용 가치가 매우 크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대적 발전 방향으로의 계승이 부족하였고 교육이나 특성화자원으로도 활용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학습 실태를 고려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유배문화를 포함한 유교문화자료를 개발하고 체험학습

을 통해 체득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고 자긍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에서는 유배문화의 향토사학습과 현장체험 학습방안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1. 향토사학습

최근 역사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감에 따라 이 분야에 관한 연구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역사 자체를 교육하는 한편 역사로써 인간을 교육하는 기능을 담당하고자 하는 역사교육은 우리 시대의 문화의식과 교육사조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특히, 민족사 학습과의 연계, 학생중심의 주제적 학습, 자기인식의 학습이라는 차원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향토사학습¹⁸⁾은 그러한 역사교육의 다양한 흐름 가운데 대표적인 양상이다.

역사를 교육한다 함은 「역사를 가르친다」는 의미와 「역사로서 가르친다」는 의미가 동시에 담겨져 있다. 이는 역사교육이 역사적 사실 그 자체를 바르게 인식함과 더불어 역사적 방법을 탐구하고 통찰하는 역사적 사고력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역사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학습방법의 하나가 바로 향토사학습인 것이다.

향토사학습이란 방법적인 면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역사 탐구의 과정을 수행하면서 가능한 한 직접적으로 역사에 접근할 수 있는 학습이며,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향토사를 중심으로 향토사와 민족사의 문제를 연관하여 성찰하는 학습으로 향토사가 주축이 되면서 민족사의 흐름을 고려하는 학습이다(조태형, 1992: 10). 일반적으로 향토사는 민족의 역사가 축소된 것이며 국가사의 일부분이기에 국가사 이해에 유용한 접근방식을 마련해 주는 이른바 국가사의 보조학문으로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향토사는 국가사의 보조적 역할에서가 아니라 충분히 그 나름대로의 존재이유와 존재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나아가 이에 상응하는 역사교육적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향토사를 국가사의 일부나 보조학문으로만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이다(이원순 외, 1983: 291-292). 따라서 향토사 연구는 중앙지향, 권력 중심의 역사에서 벗어나 향토사회의 주체인 민중의 역사를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즉, 중앙 중심에서 지방 중심으로, 지배층 중심에서 서민 중심으로, 정치사 중심에서 문화사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18) 향토사의 용어 사용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다. 향토사, 지역사, 지방사 등이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향토사란 구래의 전통적인 지역사연구를 지칭하는 것이고, 지방사는 중앙에 대한 종속적인 함축을 지닌 용어이기에 사회과학 부문에서 객관성을 지닌 지역사란 용어를 사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주장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연구대상이 연구자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역이나 아니냐 하는데 있는 것이지 그 이상의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이는 역사교육에서 향토사학습이라고 지칭할 때에는 학생이 중심이 되어 학생 주변의 가까운 향토자료를 통해서 직접적이고 실제적으로 역사의 과정을 경험한다는 의미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역사학습이라는 측면에서 후자의 견해에 동조하며 향토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향토사학습이란 향토사자료의 이용을 통한 역사학습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생이 중심이 되어 학생 주변의 향토자료를 통해서 직접적이고 실제적으로 역사의 과정을 경험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효숙, 양진건, 1995: 167-168).

대체적으로 향토사 연구는 역사연구의 경향 변화(고효숙, 양진건, 1995: 168)에 염두를 두면서 전체 민족사의 전개과정 속에서 자기 지역이 어떠한 사회 경제적 변화를 이루어왔고, 이에 따른 민중의 생활상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8.15 해방이후 초·중등학교 역사 교육에서 향토나 지역 사회를 다루려는 시도는 꾸준히 있어왔다. 특히,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 교육과정의 특징인 「교육과정의 지역화」로 발전하였으며, 이러한 정신은 2002년부터 시작된 고등학교의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발전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처럼 제7차 교육과정의 변천 속에서도 일관되게 향토 사료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왔음에도 교육현장에서는 향토 사료의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성의 결여, 시간의 부족, 향토사 교재 개발의 미흡, 교육 당국의 무관심에 가까운 지원의 부족 등으로 향토사학습의 체계적 시도는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고등학교 국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재의 재구성을 통한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반드시 달성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토사교육을 통한 한국사교육의 확대는 당위성을 갖게 되는 바 향토사료의 재구성을 통한 교육과정의 지역화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역사교육에서의 향토사 학습은 그 자체로서 훌륭한 학습 내용이 되면서도, 국사의 내용을 보충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국사와의 연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향토사학습을 전개할 때 주요 자료가 되는 것이 향토사료라고 볼 때 향토사료의 중요성은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

결국, 역사교육의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할 분야가 향토사학습이며 이것은 학생들의 의식발달 측면에서도 성취 가능한 단계임이 연구되고 있다. 향토사학습을 통해 성취될 수 있는 교육적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토사는 향토사회인의 문제해결의 역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향토의 고문서, 유물, 유적 등의 다양한 자료를 통해 향토의 역사과정을 학습하면서 그 속에서 향토사의 당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둘째, 추상적인 이해를 지양하고 구체적 수준에서 접근함으로써 학생의 흥미를 고조시키고, 그들의 역사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학생의 직접 경험을 강조함으로써 탐구와 발견의 태도를 발달시키고 논리적인 사고를 촉진할 수 있다. 넷째, 학교와 사회의 경계를 없애도록 도움을 주어 학생 자신의 지역과 학교 밖의 역사적 환경을 조사하는 지식과 기능 그리고 열정을 갖게 한다. 다섯째, 전통적인 넓은 주제와 피상적인 학습에 비해서 실제 사람과 실제 상황을 깊이 있고, 상세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므로 학생들이 활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다. 여섯째, 향토사학습에서 학생은 주위의 유물, 유적을 접촉하고 방문하는 등 향토자료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므로 이를 통하여 역사의 증거가 그들 주위에 있다는 것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과거에 대해 아는가를 파악함으로써 전달된 진실을 의심없이 받아들이는 맹목성의 위험을 깨닫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교과서의 일반적인 개념적 사항이 자신이 사는 향토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검증해 볼 수 있다.

2. 현장체험학습

21세기형 자녀교육의 이상인 논리적, 관계적, 확산적 사고의 배양은 학교나 학원에서 일시에 학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실천과 사고를 통해 습득되는 것들이다. 그러나 현대의 가정은 그 역할에 있어서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사회에서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 교육과 실천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장체험학습¹⁹⁾은 교실을 벗어나 실제의 상황에서 실물을 접하고 참여하고 느끼고 조작해봄으로써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여 종합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학습활동이다. 여기서 체험이란 국어사전적 해석으로 '자신이 몸소 경험함', 교육학 용어사전에서는 '어떤 사건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거나 행동에 참가함으로써 얻어진 결과로서 기술, 지식, 실천 등으로 개인의 삶을 형성하는 의식적인 사실과 경험대상으로서의 객체적인 사물'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체험학습이란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동으로 얻어지는 학습으로 교실에서 행해지는 학습과는 대조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때의 활동은 행동뿐만 아니라 지적·정서적 활동까지도 포함되며, 체험학습은 전인적인 교육을 의미한다.

21세기의 지식기반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해야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식의 재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장체험학습은 자기주도 학습으로 이루어져야만 창의성이 발달하는데,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학생의 적극적 참여와 실질적인 지식을 추구하고자 하는 탐구정신이야말로 창의력을 계발하는 데 필수적이다. 창의성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반영역의 지식과 기능적 기초, 특수영역의 지식과 기능적 기초, 과제집착력, 확산적 사고력, 논리적 사고력 등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창의력의 구성요소에 주목할 때 체험학습에서 창의성 교육은 다음과 같은 원리를 따라야 한다(강영혜, 1999: 13). 첫째, 일반영역의 지식과 기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계를 넓고 깊게 경험하고 이해하게 한다. 이런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교육은 다양한 과목의 교과학습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 둘째, 특정영역의 지식과 기능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특정분야의 재능을 집중적으로 갈고 닦게 한다. 기초 공통으로 충족되지 못하는 자기 나름의 개성을 위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찾아 심층적이고 집중적으로 계발하여야 한다. 셋째, 과제 집착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습해야 할 과제의 성격과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는 과제를 학습자가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자율적이고 자기주도로 학습하게 될 때 가능하다. 넷째, 확산적 사고력과 관련하여, 실수의 두려움이 없이 안정된 심리상태를 보장하여 다양하게 생각할 기회를 자주 준다. 다섯째, 논리적 사고력과 관련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합리적으로 사고하도록 격려한다.

이밖에도 창의성교육과 체험학습의 정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

19) 체험학습이란 '한정된 학습공간과 경직된 학습방법에서 벗어나 체험의 장을 넓히고 폭넓은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활달한 기상과 풍부한 정서, 건강한 신체, 창의적인 지성을 계발하는 학습방법'인데 본 연구에서는 교내에서의 각종 실험, 실습, 체육활동 및 공작, 토의, 취미, 발표회 등의 교육활동은 물론 교실 밖에서의 자연환경, 지역시설, 문화 유적지 등을 중심으로 한 자연관찰, 조사보고, 탐방, 견학 등의 체험활동을 포함하는 교육활동을 의미한다(조난심·허경철, 1994: 59).

다. 첫째, 지나치게 많은 학습량은 창의성교육을 어렵게 한다. 제한된 시간에 많은 학생들을 상대로 정해진 진도를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는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흥미를 고려한 수업이나 다양한 탐구활동의 시도가 불가능하다. 둘째, 암기 위주의 교육방법을 탈피하는 것이다. 현 상태에서 교사 주도의 강의식 수업은 학생의 능력수준, 소질, 관심 등 개인차를 고려할 수 없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전인격적 변화를 이끌만한 주제적 경험이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없다(강영혜, 1999: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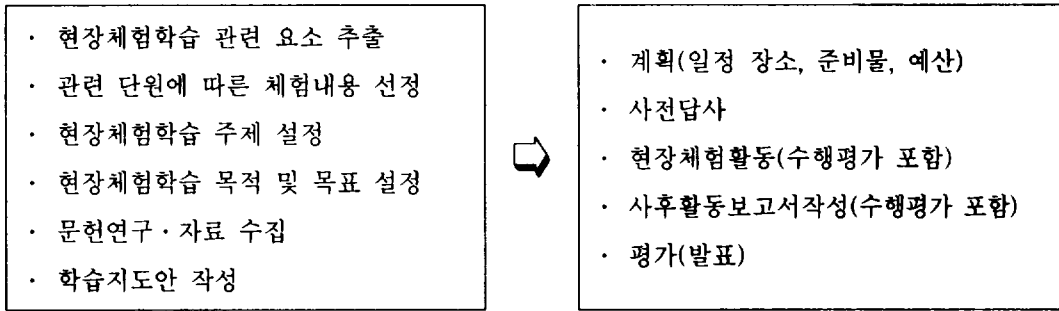
현장체험학습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첫째,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요청되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제주유배문화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과 애郷심을 기를 수 있으며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시킴으로서 밝고 건강한 품성을 가지게 한다. 셋째,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학습과정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학습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간의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바른 인성형성에 기여 할 수 있다. 넷째, 체험학습 시간마다 보고서 작성을 통해 보고 듣고 발견한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습의 결과를 내면화하는 살아 있는 공부가 된다. 다섯째, 듣는 수업에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직접 체험하는 공부를 하는 동안 창의력이 향상된다. 여섯째, '은고지신'의 정신으로 옛것을 바라보게 하여 문화의 발전이 민족의 발전임을 알게 하며, 건전한 사고와 가치관을 가진 학생으로 길러낼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일곱째, 학습효과를 위한 모든 자료를 간편하게 CD로 보급하여 교사들이 직접 자료를 출력시켜 활용할 수 있게 할뿐 아니라 자료를 제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제주유배문화에 대한 현장체험학습의 연구방법과 현장체험 학습의 절차를 소개하면 다음 <표 2>, <표 3>과 같다.

<표 2> 제주유배문화 현장체험학습 연구방법

1. 제주의 문화적 특성을 도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의 지역적, 문화적 특성을 통한 제주인의 특성을 파악한다. · 문화적 특성과 유배인들과의 관련성을 연결, 파악한다.
2. 조선시대 제주지역에 유배 온 인물의 면모를 살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시대 제주유배의 시기별 특징을 살핀다. · 조선시대 제주를 중심으로 한 유학자의 계보에 대하여 살핀다.
3. 제주유학의 특징을 살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유학의 특성과 육지의 유학인맥과의 연관성을 알아본다. · 그 특성과 인물을 연결하여 제주유학의 특징을 알아본다.
4. 제주유배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의 문화적 특성과 연결하여 계승할 유배문화를 도출한다. · 도출한 유배문화를 현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핀다.

〈표 3〉 현장체험학습의 절차



다음으로 지역체험학습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지리적인 영역으로는 행정구역상 남제주군과 대정읍의 추사 적거지를 조사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제주군과 대정읍지 및 대정향교지 등을 통하여 그 세부내용을 조사하고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통하여 정확한 위치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현장조사활동이 필요하다. 첫째, 사진촬영, 약도 작성, 현지 주민과의 대화 등이 필요하다. 둘째, 위치, 연혁, 건축양식, 기타 특징 및 제향되고 있는 인물, 각종 행사 등의 유배문화를 포함한 유교문화 전승사업을 정리하며 이를 통하여 본받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살핀다. 현장체험학습 교수·학습 지도안을 제시해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4〉 현장체험학습 교수·학습지도안

지도대상	고등학교 1학년	활동영역	국사 현장체험학습	차 시	8 / 12
장 소	대정읍 안성리 추사적거지	관련단원	3-4 정치상황의 변동	지도일시	2004.05.29
학습목표	1. 김정희의 유배 배경을 말할 수 있다. 2. 김정희와 대정향교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3. 김정희의 유배생활과 제주 유교문화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자료 (준비물)	교사 ○ 현장체험학습 지도안 ○ 현장체험학습안내문 및 학습지 ○ 관련 참고문헌 및 자료	학생	필기도구·사진기·메모지·참고자료		
사전지도	· 현장수업의 필요성 인식하기 · 지역역사체험학습의 방법과 계획 수립 및 기초자료 조사하기 · 수업 중 유의사항 주지하기				

단 계	교 수 - 학 습 활 동		자료 유의점
	교 사	학 생	
도 입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학습현장으로 이동 · 수업 전개 과정 확인시키기 · 역할과 사전지식 생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서있게 이동 · 수업 전개과정을 확인하기 · 역할 인식하고 사전지식 상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유발한다.
전 개 (4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부한 자료와 학습지를 보면서 설명 듣기 -김정희에 대한 인물 설명 -김정희의 유배 배경 -추사체 완성과 제주 유배생활 -제주에 미친 영향 -현재 입장에서 그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방법 -대정향교와 김정희의 관련성 · 모듬별 현장체험학습 활동하기 -각 모듬별로 관찰, 기록, 및 사진 촬영 -구조 및 유물 스케치 -관찰, 조사한 자료 정리 -발표 및 토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수업을 전개한다. · 학생의 관심이 집중하도록 한다. · 역사 행위자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유도한다.
정 리 (2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 소감문 제재 준비 -새롭게 안 것, 감명 깊은 것, 지역 문화에 대해 긍지를 느낀 점 · 체험학습지 기록 · 현장체험 활동 장소 환경 정화활동 실시 		
평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활동 중 각종 자료를 열심히 기록·수집하였는가? · 보고서 및 소감 발표 내용이 충실한가? · 역사학습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 	

V. 결 론

각 지역은 그 지역 특유의 문화가 있어 발전하고 계승되며 독특한 문화권을 형성한다. 이들 문화는 때로는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그 원천적인 기본을 보존한 채 꾸준히 변화하면서 계승되어 온 것이다. 인간의 감정과 이성을 표출한 문학을 논함에 있어 문화권의 특징과 그 계승·발전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유배인이 제주문화에 끼친 영향을 고찰하는 이 논문은 일정한 의의를 지닌다.

제주유배인들은 교육자 또는 자기완성자로서 현지 주민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현지의 학문 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였다. 유배인들은 유배생활을 독서생활로 전환하여 치열한

학자적 생활을 전개하였으며, 지역민들과 교류하면서 학자로서 유교적 교양을 바탕으로 한 많은 양의 지적 유산을 유배지에 남겼다.

2002년부터 고등학교에서 시작된 제7차 교육과정의 운영으로 도입된 수준별 심화보충학습은 학교현장에서 그 지방 혹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교과에 걸쳐 향토문화자료의 개발과 그 적용을 실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특히 운영에 있어 보충학습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재량으로 별도의 시간을 확보하여 심화학습과 보충학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별로 유배문화가 포함된 향토문화자료를 교과에 투입하여 적절히 운영할 수 있도록 향토자료를 수집하고 교육과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향토사학습의 실제 적용으로 교육과정과 연계된 현장체험학습 교육안은 먼저 교과별, 학년별, 과목별로 구분하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토문화(민속)자료실 혹은 향토도서관, 멀티미디어실 등과 같은 물적 공간을 두어 교과교육 이외에 전시실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향토문화자료는 인터넷과 시청각기자재자료, 예를 들면 V.T.R 자료, 슬라이드 및 사진자료 또는 O.H.P 등의 시각자료와 녹음 등 청각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개발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 차원에서 추진 중인 유배문화관 건립사업은 『제주유배사』를 펴내고 유배인들이 체류했던 적거지와 유배지 등 유적도 정비할 계획이다. 유배문화관 건립과 더불어 유배문화 학술대회와 예술제를 매년 개최하여 제주유배문화가 제주문화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학제간 공동연구를 하고 시기별로 제주지역의 유교문화와 관련하여 조선사회 제주지역에 형성된 유교문화와 유배문화의 관련성을 좀 더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유배문화를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배문화가 제주지역에 미친 순기능과 역기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유배문화의 기능적 연구가 이루어진 다음에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부작용이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교현장에서도 학생들로 하여금 유배문화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갖고 유형이든 무형이든 유배문화에 대한 이해의 차원을 넘어 체험적으로 실질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정책에 의한 뒷받침이 필요하다. 가령, 국어교과와 관련된 그 지역의 유배문학작품, 사회교과 특히 국사과목에서 창의적 재량활동시간을 이용해서 향토사학습을 실시하고 현장체험학습도 병행해서 실시하는 방안이 학교별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한겨레신문〉 2004년 3월 30일자.

- 강영혜(1999), 「체협학습의 이론적 기초」, 『열린교육연구』, 열린교육학회, 제7집 제2호
- 고효숙, 양진건(1995), 「향토사학습의 선정내용과 조직-중학교 교과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15.
- 교육인적자원부(1997), 『초등학교 교육과정(7차)』,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인적자원부(2001), 『고등학교 국사 교사용 지도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국립제주박물관 편(2001), 『제주의 역사와 문화』.
- 김동수(1995), 「유배문화론의 부당성」, 『사회문화리뷰』 1995년 10월호.
- 김동수(1996), 「호남소외론의 허와 실」, 『호남의 역사와 문화강좌 자료집』, 전남대학교박물관.
- 김동전(2001), 「조선시대의 제주사회: 유배문화와 방어유적」, 『제주의 역사와 문화』 2, 제주도·(사)제주민예총.
- 김응현(1981), 『한국의 미』, 중앙일보사.
- 김정호(1983), 「유배와 은둔이 남긴 유산」, 『전남의 전통문화』 상. 양순필 외 15인 지음(1991), 『제주문화의 재조명』, 일념.
- 박만규·나경수 편(1999), 『호남전통문화론』, 전남대출판부.
- 박미선(2002), 「'호남문화론'에 대한 제 논의와 전망」, 『호남문화연구』 31.
- 박석무(1996), 「해남·강진의 유배지문화」, 『역사와 지성』
- 소재영(2003), 「유배인의 문학」, 『한국문화와 제주』, 국립제주박물관.
- 송춘영(1990), 「국사교육에 있어서 향토사 교재의 지도방안」, 『역사교육논집』 13,14 합집.
- 양순필(1983), 「제주유배한시연구」, 『제주대논문집』 16.
- 양순필(1992), 『제주유배문학연구』, 제주문화.
- 양진건(1990), 「濟州流配人의 開化敎學活動 研究」, 『민족문화연구』
- 양진건(1992), 「秋史 金正喜의 濟州流配 敎學思想 研究」, 『제주도연구』 9.
- 양진건(1999), 「그섬에 유배된 사람들—제주도 유배인 열전」, 문학과 지성사.
- 양진건(2001), 「유배문화와 제주도: 제주교육의 기저에 대한 이해를 위해」, 『교육인류학연구』 4.
- 양진건(2002), 『제주교육행정사』, 제주문화.
- 양진건(2003), 「제주유배인의 독서활동이 제주교육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사학』 26.
- 염미경(2000), 「도서지역의 활성화와 정체성 정치-일본 미이라쿠의 역사마을 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학회』 제34집 가을호.
- 吳文福(1989), 『瀛州風雅』.
- 이원순 외(1983), 『역사교육론』, 삼영사.
- 이해준(1987), 「진도유배인물지」, 『진도군의 문화유적』, 목포대박물관.
- 정근식(1996), 「지역정체성과 상징정치」, 『경제와 사회』 30.

- 전국역사교사모임 편(2003), 『변방 제주섬에서 본 한국사』
 제주도(1988), 『제주선현지』
 제주도교육연구원(1974), 『제주교육통사』
 제주도교육위원회(1979), 『제주교육사』
 조난심·허경철(1994), 「인간성을 위한 학교 교육 모형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조태형(1992), 「향토사료의 재구성과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석사학위논문.
 한상준(1980), 「역사교육에 있어서 사료학습의 접근 방안」, 『경북사대 교육연구지』 22.
 한석지 외 5인 지음(1998), 「제주섬 정체성 변화에 관한 연구」, 『제주도연구』 15.
 『經國大典』
 『國朝人物考』
 『大典會通』
 『小學』
 『承政院日記』
 『日省錄』
 『朝鮮王朝實錄』
 『耽羅觀風案』
 『耽羅錄』
 姜瑋, 『姜瑋全集』
 金錫翼, 『耽羅紀年』
 金允植, 『續陰晴史』
 金平默, 『重菴集』, 『重菴別集』
 金正喜, 『阮堂先生全集』
 南萬里, 『耽羅誌』
 李源祚, 『耽羅誌草本』
 李元鎮, 『耽羅志』
 尹榮善, 『朝鮮儒賢淵源圖』
 崔益鉉, 『勉菴集』.
- <http://100.naver.com/100.php?mode=body&id=141837>